

미니골드바 미아방지 목걸이...황금개를 잡아라

유통업계 무술년 개띠 마케팅

반려동물 대표스타, 다른 때보다 품목 다양
현대백화점, 스페셜관서 미니골드바 판매
다이소, 다양한 품목 '황금 복덩이 시리즈'



2018년 무술년이 황금개띠해로 알려지면서 요즘 유통업계에는 '황금개띠 마케팅'이 한창이다. 그 해에 해당하는 12간지의 동물을 캐릭터화해 상품이나 이벤트에 활용하는 띠 마케팅은 매년 신년에 등장하는 단골 마케팅 아이디어이다. 하지만 올해는 개가 사람과 친근한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보니 어느 해보다 띠 마케팅 용품이 다양하게 등장해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황금색과 강아지를 콘셉트로 내세운 이색 상품이 우선 눈에 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온라인몰인 현대H몰과 더현대닷컴에 한국조폐공사 스페셜관을 개설, '2018년 무술년 황금개 미니골드바' 등 황금 기념품 70여종을 판매 중이다. 오픈마켓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강아지 모양의 '18K 미아방지 목걸이', 황



금색으로 도색한 '강아지 저금통', 완구제품 '황금강아지 퍼즐'도 올해 띠 마케팅의 인기 품목이다.

생활용품류 다이소는 '황금 복덩이 시리즈'를 내놓았다. 진돗개 복덩이, 삼살개 복덩이 등 황금개띠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실용성뿐 아니라 신년 기념 선물로서 의미를 담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복주머니, 용돈봉투 등 신년용품은 물론 문구류, 식기류, 캐릭터 인

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패션그룹형지 까스텔바작 홈은 푸들, 비글 등 강아지 캐릭터가 담긴 지수 쿠션을 출시했다.

백화점업계는 황금개 관련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5일부터 7일까지 하루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강아지 디자인이 들어간 욕실 세트를 증정한다. AK백화점은 2일부터 모바일게임 애니팡 프렌즈의 강아지



2018년 무술년을 맞아 '황금개띠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대H몰·더현대닷컴에서 판매 중인 '2018년 무술년 황금개 미니골드바' (왼쪽)와 다이소의 '황금 복덩이 시리즈'.

캐릭터 '황금 망토 블루' 제휴 마케팅을 실시해 선착순 2018명에게 황금 망토 블루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 텀버스카드를 발급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8년 새해에 '황금개띠'라는 스토리텔링을 붙임으로써 고객에게 감성적 동의를 구하려는 목표"라며 "새해를 좀더 희망차고 즐겁게 맞이하자는 의의와 함께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18년 게임업계 화두는 글로벌·PC·e스포츠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은 인기 PC게임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이 돌풍을 일으켰다. '배틀그라운드'라는 토종 PC온라인게임이 글로벌에서 '대박'을 터트리며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2018년 게임 시장은 어떨까.

먼저 모바일게임의 해외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해외에서 성과를 낸 '리니지2 레볼루션'과 '리니지M'의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등 글로벌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게임빌이 12일 국내 출시를 앞둔 '로열블러드'도 해외 성과에 관심을 모은다. '글로벌 원빌드' 전략으로 3월부터 해외 진출에 나선다. 북미와 유럽에서 흥행한 PC 온라인게임 '검은사막'의 IP를 활용한 펠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올해 게임업계 키워드는 모바일게임 해외진출, PC온라인게임의 부활, e스포츠의 새로운 도전이다. 글로벌 원빌드 전략으로 해외 공략에 나서는 게임빌의 '로열블러드' (왼쪽)와 PC온라인게임 기대작인 넥슨의 '천애명월도'.



사건제공 | 게임빌·넥슨

있다.

PC온라인게임의 부활도 올해 눈여겨 볼 부분이다. 다양한 신작 게임이 출시 또는 테스트에 나선다. 기대작은 블루홀의 '에어',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 엔씨소프트의 '더리니

지' 등이다. 넥슨은 '천애명월도'와 '타이탄폴 온라인', '피파온라인4' 등 대작을 쏟아낼 예정이다. 기대작들이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배틀그라운드와 흥행 성과를 이룬지 이목이 집중된다.

로열블러드, 검은사막 모바일 해외 진출
배틀그라운드, WCG 등 새 e스포츠 도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e스포츠도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 지난해 누적 시청 12억 시간을 넘어 견제함을 과시한 롤드컵의 '리그오브레전드'에 새 종목들이 도전장을 낸다. 그 중엔 국산 게임으로, 전세계 e스포츠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도 있다. 올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산 게임으로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리그'가 11일 개막한다. 새로운 국산 e스포츠 브랜드도 올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e스포츠 올림픽'이라 불렀던 WCG는 4월26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첫 선을 보인 WEGL은 올해 오디션 프로그램을 비롯한 색다른 콘텐츠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2.26~29

코스피지수	2467.49	▲	+40.15
코스닥지수	798.42	▲	+36.21
日 닛케이 지수	2만2764.94	▼	-127.75
中 상하이 종합	3307.17	▲	+1.0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4	▲	+0.1
환율 (원 · 달러)	1068.50	▼	-7.7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536.04	▲	+292.97

지수(코스닥·코스피 28일 종가, 니케이·상하이 29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박용만, 경기회복에 국회 역할 강조



"규제완화나 노동 해법에서 뒤처지면 무엇으로 이기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 입법 의지에 대해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가 스피드인데, 그런 장점이 입법부에서 와해된다"며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회장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문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 법위를 조절해 율령 것과 안율령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경기 전망에 대해 글로벌 경제 훈풍이 계속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통상마찰,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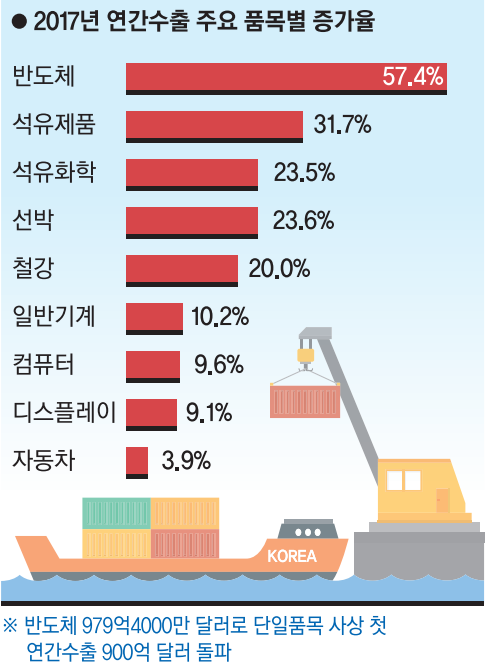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년 신년사에서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국민 삶의 가치적 변화'에 두겠다며)
-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018년 신년사에서 성장세 회복하고 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지금이 개혁 추진 적기라며)
- "미국과 무역마찰만 없으면 올해도 3% 성장 무난" (배리 아이겐그린 교수, 한국 경제 2018년 전망에서 긍정적인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없으면 3% 성장 가능하다고)
- "목사도 일반국민처럼 정당하게 세금 내야" (안기호 신림동 주님의 교회 목사,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세금 특혜 부분 삭제하고 공평과세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소원 1호 청구인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경제

2017 수출, 무역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2017년 연간 수출이 1955년 무역통계 작성 61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573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4781억 달러로 수출입을 합친 무역규모가 1조520억 달러로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 흑자다. 우리나라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이고, 세계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13개 주요 품목 중 9개의 수출이 증가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롯데월드, 신년축제 '월드 편 2018' 개막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신년축제 '월드 편 2018' (사진)을 3월11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매주 토요일 세계 대표적인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새터데이 댄스 라이브'가 가든 스테이지에서 열린다. 라틴, 치어리딩 아크로바틱, 트론, 재즈&비밥 등 다양한 댄스를 만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실내 어드벤처 퍼레이드 코스에서는 파워풀한 댄스 버스킹을 실시한다. 일요일에는 드래곳, 판타스틱 등 유명 타악팀이 퓨전, 민속, 코믹 등 매주 다른 장르의 퍼

포먼스를 펼치는 '비트 더 월드'가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응원하는 동계종목 체험도 있다. 미니 컬링, 도전 아이스하키 등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고 미션에 성공하면 금메달 초콜릿을 증정하는 '미니 동계올림픽' 이벤트다. 특히 신년축제 메인 퍼레이드인 '로티스 어드벤처 퍼레이드'와 캐릭터 쇼 '캐릭터 환타지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캐릭터인 수호령과 만다비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골드독 모찌모찌 인형과 빠다귀 쿠션,



골드독 헤어밴드와 헤어핀, 골드독 모자 등의 황금개띠 기념상품도 판매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LG전자 새해 첫 스마트폰 프로모션

LG전자는 2월까지 새해 첫 스마트폰 프로모션 '굿 체인지 굿 찬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V30나 G6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기프트팩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올레드 TV와 트롬 스타일러, 트롬 건조기, 코드제로 A9, 워치 스타일, 구글 데이드림 뷰 등이다. 또 구입고객에게는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트롬 스타일러, 퓨리케어 정수기, 힐링미 안마의자 등 LG 전자 건강관리가전 5종의 렌탈료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영근 기자